

9월10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35~1345원  
NDF 증가 : 1339.50 (Swap point : -2.60, 1342.1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/원 환율은 달러 강세와 수급 요인에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. 지난주 미 고용 데이터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소화 후 연준 빅컷 기대의 되돌림에 강달러 흐름이 이어짐. 주요 경제지표 발표 부재 속 이번주 예정된 미 CPI 결과를 대기하며 달러는 현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 이에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제한되는 가운데 수급에 따른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. 한편, 뉴욕 증시 상승 등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진정된 측면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. 이에 환율은 상승 및 13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
- (전일 동향) 9일 달러/원 환율은 미 비농업 고용지표의 혼재된 결과와 월러 연준 이사 발언에 빅컷 기대가 약화되면서 9.4원 오른 1337.0원 출발. 이후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에 상단 제한되며 12.2원 상승한 1339.8원에 증가 기록(15:30). 재료 부재 속 달러 강세 이어지는 가운데 13.4원 오른 1341.0원에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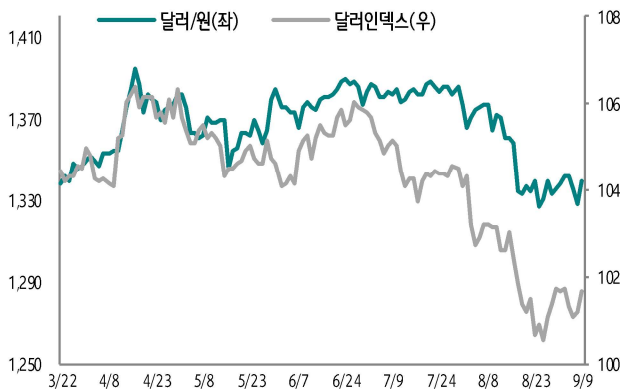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

- 연준 빅컷 기대의 되돌림과 강달러
-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

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
-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가능성
- 뉴욕증시 반등 등 리스크오프 완화

KRW, USD Index



자료: 인포맥스

[Global Market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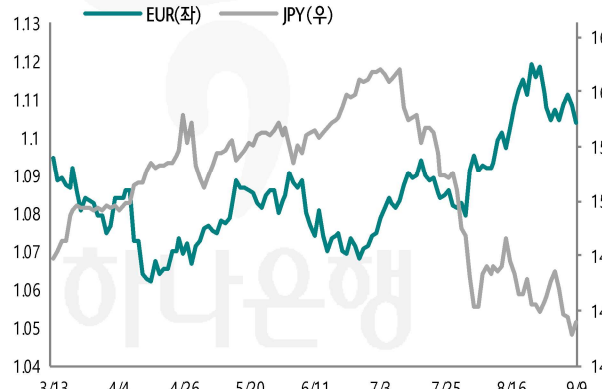
EUR/USD 예상 : 1.0976~1.1076  
USD/JPY 예상 : 142.79~143.79

- (USD Index)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고용지표 발표 후 9월 FOMC에서의 50bp 금리인하 기대를 조정해가는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인덱스는 0.45 상승한 101.64를 기록
- (EUR) 유로화는 이번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두 번째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하락세 지속. 유로/달러 환율은 0.0049달러 하락한 1.1036달러로 마감
- (JPY) 엔화는 일본 2분기 실질 GDP가 설비투자, 개인소비 부진 등으로 잠정치 대비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에 경제 회복 지연 우려가 나타나면서 약세. 달러/엔 환율은 0.87엔 상승한 143.19엔으로 마감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101.64 (+0.45)	
EUR/USD	1.1036 (-0.0049)	1478.60 (+6.86)
USD/JPY	143.19 (+0.87)	935.75 (+2.80)
USD/CNH	7.1202 (+0.0280)	188.15 (+0.96)

EUR, JPY



자료: 인포맥스

[Macro Analysis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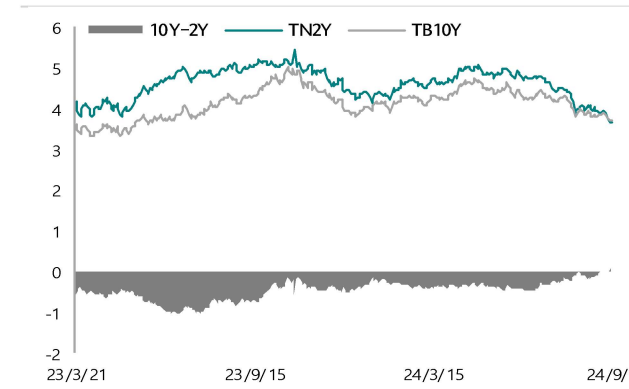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3.00bp (전일대비 -3.20)

- 글로벌 경제는 미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소화 후 빅컷 인하 베타가 되돌려지는 모습. 미 8월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 지수(ETI)는 109.04를 기록했으며 이전치는 108.71로 하향 수정. 미 7월 소비자신용은 전월비 255억달러 급증하며 1년 반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. 뉴욕 연준의 8월 소비자기대조사(SCE) 결과에서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 상환 연체 확률은 13.6%로 전월대비 0.3%p 상승. 미 국제 수익률은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 소화 후 이익실현 움직임 나타난 가운데 2년물 2.30bp 상승한 3.671% 10년물 0.90bp 하락한 3.701% 기록. 뉴욕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다우지수 +1.20%, S&P +1.16%, 나스닥 +1.16% 마감.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걸프 연안 원유 생산 차질 우려에 상승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5:00	독일 8월 CPI상승률(YoY)	1.9%	2.3%
18:00	EU 경제전망보고서		
21:55	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(YoY)		6.3%

US Treasury Market



자료: 인포맥스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달러 강세 속 수급에 따른 등락 흐름, 환율 상승 전망